

평택아동문학 2026 제21호

몽글몽글 동심꽃



(사)한국아동문학회 평택지부
평택아동문학회

<http://cafe.daum.net/ptchildliterature>

책을 펴내며

박미자 꿈꾸는 동심 정원 7

동시 · 동민조시

강영희	지각 12
	동화 세상 13
	할머니의 옥상 텃밭 14
	비 온 뒤 참새 (동민조시) 15
	여름 방학 (동민조시) 16
경봉현	군자란 18
	친구 19
	행운목 20
	소 21
	참게 22
김경자	잠깐만요 24
	초롱꽃 25
	산수유꽃 26
	줄줄이 27
	목련꽃 28
김복남	달리기 30
	빙수 31
	냄비 게임 32
	하늘 지도 33
	복수초 34
김선옥	작품 36
	선물 37
	산수유 38
	소나무 (동민조시) 39
	길 (동민조시) 40
김순선	풍선 42
	2026.3.3 달빛 43
	담쟁이 44
	미술 시간 45
	별 46

김순희	노랑턱 멧새 48
	맹꽁이 49
	이렇게 좋은 날 50
	엄마 마음 51
	그래, 그랬구나! (동민조시) 52
김정자	나무들의 수업 시간 54
	꿈이었으면 55
	내게 온 선물 56
	토닥토닥 57
	꽃속에서 (동민조시) 58
김화창	봄소식 60
	친구 소식 61
	개나리 62
	물웅덩이 63
	봄 밭에서 64
박미자	대박이야 66
	정직한 내 동생 67
	형광등 68
	백화점에 없는 것 69
	눈꽃 이불 70
박순희	바람 놀이 72
	할머니네 굴뚝 73
	내 그림자 74
	가을날 75
	봄눈 76
방효필	놀이터 78
	우정 79
	냉이 (동민조시) 80
	소나무 (동민조시) 81
	벚꽃 (동민조시) 82

안경옥	봄비	84
	머리띠	85
	사물놀이	86
	가게	87
	가을 바람	88
이은혜	몽계구름	90
	지휘자	91
	신발장 수다	92
	토닥토닥	93
	자석 (동민조시)	94
이태동	따라 해 보세요	96
	사과의 사과문	97
	생각의 정원사	98
	떼굴떼굴	99
	할미꽃	100
이해복	그늘	102
	잡자는 농기구	103
	아빠의 밥상	104
	청보리밭 (동민조시)	105
	좋은 친구 (동민조시)	106
진귀녀	그네	108
	장난감 인형	109
	자전거	110
	창문 (동민조시)	111
	덩굴손 (동민조시)	112
최경순	너무해	114
	첫눈 오는 날	115
	노란 수선화 (동민조시)	116
	번개 (동민조시)	117
	봄 햇살 (동민조시)	118

최일숙	아기 떡뽕	120
	걸음마	121
	소나기	122
	변덕쟁이	123
	아기 참새	124

동화

이경희	사도세자 영혼이 깃든 섬, 수도(水道) ...	128
-----	---------------------------	-----

좌울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

박유담(자란초 3)	내 동생	135
조주안(대동초 5)	피곤함 군대	136
김지우(새빛초 2)	선생님의 장점	137
조서연(현덕초 6)	비빔밥	138
이세미(새빛초 2)	맛있는 급식	139
이가연(지산초 4)	별에게 묻다	140
신하윤(이화초 6)	햇살	141
김윤아(새빛초 2)	재밌고 힘든 물놀이	143
최서진(이화초 3)	내 이빨	144
정동욱(덕동초 4)	네모 세상	145
좌울 어린이 문학상 심사평	146

평택아동문학회

연혁 및 활동사진	151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156
평택아동문학회 회원들의 저서 소개	169
평택아동문학회 회원 가입 안내	173

꿈꾸는 동심 정원

스무 색깔의 글꽃이
몽글몽글 100여 송이 피어났습니다.
맑고 순한 웃음이 있는 이곳
아동문학 정원에 놀러 오세요.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릴법한
동심꽃 한 다발씩 나누겠습니다.

자연과 일상 소재의 행간마다
초록의 문장들로 채우며 성장해 온
싱그런 청춘 스물하나가,
올해 평택아동문학상을 제정하면서
글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정성껏 글밭을 가꾸다 보면
동심꽃은 더 향기롭게 피어나
세상 환한 봄날로 이어지겠지요.

귀한 옥고 주신 회원님들과
좌울 문학 수상 어린이들과
작품집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사다리를 놓아준
평택시에 감사드립니다.



회장 박미자

26. 6. 바람 불어 좋은 날에

평택아동문학회
회원작품

동시·동민조시

강영희
경봉현
김경자
김복남
김선옥
김순선
김순회
김정자
김화창
박미자
박순희
방효필
안경옥
이은혜
이태동
이해복
진귀녀
최경순
최일숙

<http://cafe.daum.net/ptchildliterature>



강영희

자유문학 동인조시 등림
밀크티 창작동화공모전 은상
저서 : 동시집 『편의점 속 별사탕』
공저 동화집 『버드 스파이크』



지각

씻!
입술에 검지로 보초 세우고
조심조심 들어가
시침 똑 떼고 앉는데

“삐걱”

‘선생님, 애 지금 왔어요!’
의자가 이른다

동화 세상

시계가 재깅재깅
낮잠 자던 고양이 코털이 움찔움찔
종소리를 기다려

땡,
해님은 미끄럼틀 아래 숨고
땡땡,
어슬렁어슬렁 한껏 감아올린 백구 꼬리
그 위 하얀 나비 올라타 장군처럼 빠기고
땡땡땡,
멀리 자박거리는 발걸음들

네 번째 땡,
어서 오라 손짓하는 바람
박차를 더하는 마부 생쥐

열두 번째 땡,
신데렐라의 호박 마차가
내려 준 곳
우리만의 세상이에요

할머니의 옥상 텃밭

텃밭쫂 통으로 들어 올린다면
거인이 맞아
그런데 말이야, 이상해

그 거인
몸은 자그만 해
걸음은 느려
계단을 오를 때면
“아이고”를 늘 중얼대

손은 가위손
가지도 고추도 깎잎도
닿기만 하면 푹. 푹. 푹.
신나면 텃밭을 훑기기도 해

스티로폼 텃밭 주인
텃밭 앞에서만 몸이 커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비 온 뒤 참새 (동민조시)

깜찍한
부리로 푹
짧은 다리로
총, 총, 총, 사냥 중.

여름 방학 (동민조시)

시작은
꽃노래로
끝나갈 때면
땀이 뺨질뺨질.



경봉현

아동문학문에 동시 신인문학상
한국아동문학 오늘의 작가상
저서 : 동시집 『청개구리의 노래』, 『이팝나무꽃』



군자란

겨울 동안 구석에서
보초만 서더니
슬그머니 초록 잎 사이로
주홍 꽃 살짝 보여주네

봄빛에 고운 얼굴
자랑하고 싶어
긴 목 빼어 들고

내가 군자란이야!

친구

화창한 봄날
수선화 동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친구야, 어디 갔니?
여기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야, 언제 올 거니?
수선화 노란 등불 꺼져가고 있는데

행운목

우리 집 거실에
좋은 자리 차지한 행운목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다면서도
매일 행운목만 쓰다듬고 있네

오늘은 아빠가 먼저 내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토닥여 주면 좋겠다

난 우리 집 행운아니까

소

음메~음메~

목을 빼고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껌뻑
입맛 다시며
할아버지를 찾는다

배고프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저녁 준비하신다

가족이라 그런가
서로 닮았다

참계

참계야
우리 할머니 오시걸랑
숨어있지 말고 나와
멋진 공연 보여줘

집게다리 가위춤과
뒷다리 수영 솜씨
옆으로 걷는 묘기

재밌다고 깔깔깔
박수 치며 웃으실 거야



김경자

강건문학 신춘문예 신인상
한국아동문학 오늘의 작가상
제5회 한반도 통일 문학상
한국아동문학회 이사
저서 : 『은빛물비늘』, 『아기꽃망을 꿈』
2021 고운글 문학상, 청암문학 본상
2023년 한국문인협회 전영택 문학상 수상
2024년 한국동요음악 작사 대상 수상



잠깐만요

이른 봄
낙엽 이불 속에서
입술만 살짝 내민 꽃

아직 추워요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아저씨 이불 걷지 마세요
궁금해도
기다려 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나갈 수 있게

초롱꽃

케이블카처럼
조롱조롱 매달려 있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거니?

별 나비들
멀미 날까 봐 그러니?

마실 간 할머니
길 밝혀 드리면 안 되겠니?

좁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니?

산수유꽃

아가 별들이
산수유나무에서
반짝반짝
놀고 있다

언제 내려온 거니
엄마가 찾겠다

엄마 별이 눈에
번쩍번쩍 불을 켜고
아가별을 찾고 있다

줄줄이

아빠랑 같이
냇시터에 갔어요

맑은 호수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흰 구름도 한 점
빠져 있어요

아빠의 낚시줄에
줄줄이 달려 나오는 물고기

나의 낚시줄에는
줄줄이 달려 나오는
아름다운 추억거리

목련꽃

우리 집 앞마당에
고장 난 꼬마전구
누가 고쳤을까?

상들리에가
이 봄을 환하게
밝혀 들었다



김복남

월간 『아동문학』 동시 신인상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이사
월간 『아동문학』 대상



달리기

아기가 엄마 보고
달리기를 시작해요

두손 두발
온 힘을 다해

거북이 자세
제트기 속도로

박수와 응원받으며
엄마 품속까지 쏘옥!

빙수

하얀 눈꽃 위에
무지개가 피었네
팥알, 인절미, 체리

예쁜 그릇에 소복한
동글동글 고운 말씨들
맛있는 웃음소리
부드럽고 달콤해

사르르 사르르
여름이 녹아내리네

냄비 게임

가위 바위 보!
뽕망치로 땅!

근데 왜 나는 항상
냄비를 뒤집어쓰고 있는 거야?

하늘 지도

독수리보다 높게
비행기보다 빠르게
지구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

세상 모든 걸
한눈에 담으며
자전거 타고
구름 위를 달려보고 싶어

복수초

겨울을 비집고 나온
양지쪽 말간 얼굴

좋은 소식 가져와
희망 노래 불러주는

눈부신 복수초
반가워라 새봄!



김선옥

평택 아동문학회 회원



작품

흰옷 입었을 땐
앞치마 두르라고 했잖아
고집쟁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하얀 티셔츠에
짬뽕 물감으로 그린 그림
쌈통인데 예술이네
빨간 꽃 그림 액자

선물

주머니에 손 넣고
부스럭부스럭
만지작만지작

짜깁이 건넌
크래커 한 봉지

나도 쓰윽
초콜릿 한 개 내민다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드는
크나큰 선물

산수유

별빛 천사
살짝이 다가오네
어여쁜 첫 손님

따사로운 미소
마중하는 발길
설레는 마음

우리 만남은 늘
넘치는 기쁨이지

소나무 (동민조시)

멋지고
아름다운
나의 수호신

답고 싶어라
갇갇한 푸르름.

길 (동민조시)

천만번
부딪혀도
흔들려도
그래 다 좋아

넘어지지만 마!



김순선

제10회 평택시백일장 우수상
제10회 평택시시화전 최우수상
제1회 소풍정원백일장 우수상
아동문학문예 동시 신인문학상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풍선

두 팔 높이 들고
까치발 딛고

풍선은 자꾸자꾸
하늘로 하늘로

별님 달님 만나러
가고 싶구나

따라 가면 안돼
나랑 같이 놀자

2026.3.3 달빛

개기월식
비밀의 문 스르르

아니! 이럴 수가!
발짱게 익은 달님

내가 좋아하는
천도복숭아
하늘에 달렸네

담쟁이

손에 손잡고
지붕 덮은 초록 담쟁이
뭉쳐야 산다는
할아버지 말씀
들었나 봐요

몹시 귀 밝은 친구들이야

미술 시간

뭘 그리지?
뭘 그릴까?
무조건 그려야지
내 마음은 봄

하얀 종이에 봄꽃들
노랑 개나리
분홍 진달래
방글방글 꽃 웃음

별

바람이 살랑살랑
호수를 간지럽히면
별들이 운슬로 내려앉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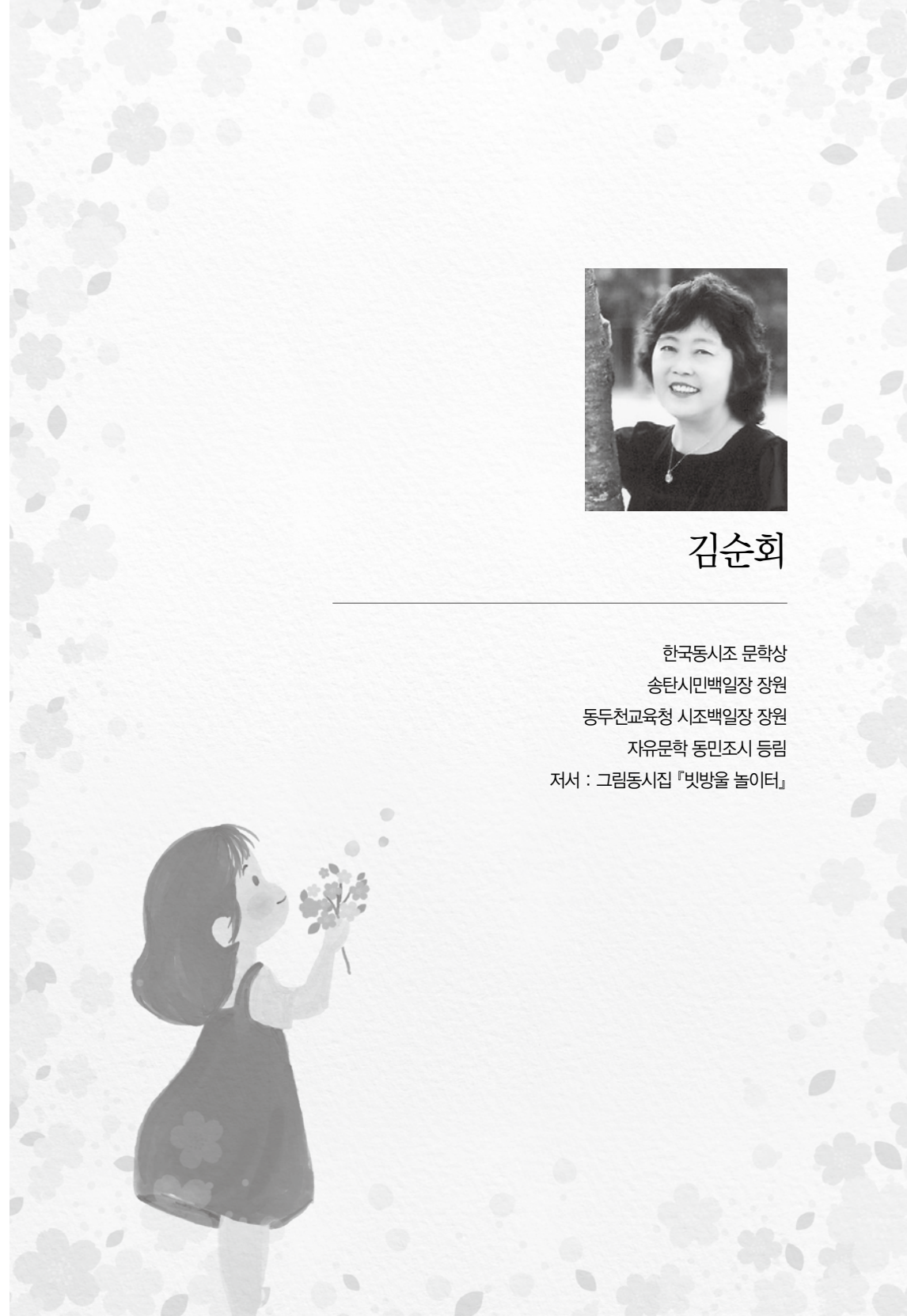
반짝반짝 신나게
축제를 열어요

호숫가에 앉아서
온종일 봐요



김순희

한국동시조 문학상
송탄시민백일장 장원
동두천교육청 시조백일장 장원
자유문학 동민조시 등림
저서 : 그림동시집 『빗방울 놀이터』



노랑턱 멧새

장당공원 놀러가면
짖 짜르짜르 짜르르르
은방울 소리로
날 반기는 멧새

머리도 나처럼
노란물 들었네요
턱엔 나처럼
노란 리본 달았구요

초봄을 몰고와
벚꽃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노랑턱 멧새

맹꽁이

집 앞 맹꽁이
해마다 맹꽁맹꽁
반겨 주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울지 않네요

습지가 오염됐나
걱정이 돼요

소낙비 내리는 날
행여나 울까 봐

우산 쓰고 앉아서
온종일 기다려요

이렇게 좋은 날

숙제하기 싫은 날
등나무 밑에 앉아
고개 들었더니

보랏빛 꽃송이들
꿀벌과 놀다가

뭐하니?
이렇게 좋은 날

꿀벌도 등꽃도
나를 놀려요

얼른 달려가서
숙제하고 놀아야지

엄마 마음

장독에 넣어 놓은
생선 한 마리

날쌔 고양이
물고 가네요

할머니 드리려던 갈치

평상 밑 아기 고양이들이
맛있다고 냐옹냐옹

그래, 그랬구나! (동민조시)

친구가
힘들다고
내게 기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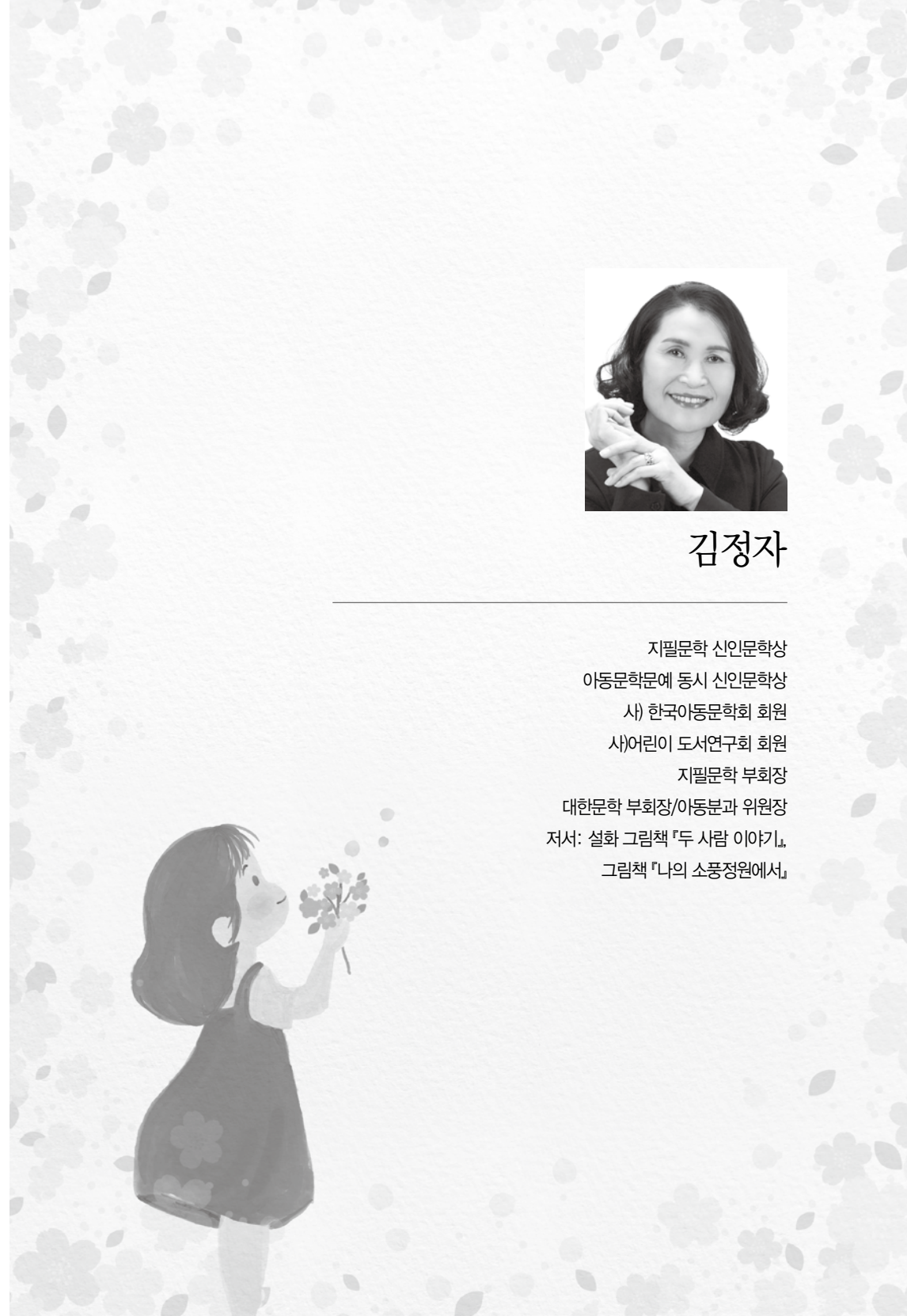
마음 아팠구나
속상 했겠구나

꼭 안아 주었어.



김정자

지필문학 신인문학상
아동문학문예 동시 신인문학상
사)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사)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원
지필문학 부회장
대한문학 부회장/아동분과 위원장
저서: 설화 그림책 『두 사람 이야기』,
그림책 『나의 소풍정원에서』



나무들의 수업 시간

황소바람, 휘잉
날카로운 손톱으로 할퀴고
세찬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땀 긴장해야 해
다리에 힘을 주고
흔들려도 허리는 꺾꽂이

바짝 집중해야 해
비틀비틀 팔이 꺾일 수도 있어
어찌면 부러질지도 몰라

겨울을 대비하는
비상 대책 수업 시간

꿈이었으면

아무 생각도 안난다
네 생각 밖에는

버들이 춤추던
따뜻한 봄날
무지개다리 건너간 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었다
요 며칠 아무것도 안먹던

꿈이, 너처럼

* 꿈이 : 17년간 우리 가족이었던 고양이

내게 온 선물

꿈이야! 부르면
백만 불짜리 대답
야옹

머리 쓰다듬으면
스르르 눈 감고
가르릉가르릉

왼손 오른손으로
톡톡
점프!
아빠와 권투도
이겼지?

내가 엄마만큼 클 때까지
마음속 비밀공간에서
같이 놀자

토닥토닥

깊은 밤 울음소리
나를 깨우면

예쁘지?
우리 꿈이
내일 일찍 보자
그말에 돌아서 가는
너

미안해
쓰담쓰담
해주지 못해서

꽃속에서 (동민조시)

벚꽃을
닿은 꿈아
꽃비 내린다
네가 없는데
천지는 꽃세상.

개나리
매화 목련
사방 꽃 잔치
그 속에서 찾지,

꽃 속에 숨은 너.



김화창

상록수문학 동시 등단, 세계문학 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이사
한국아동문학 오늘의 작가상, 천등문학상
문학과 어린이 고운 글 문학상
설만한 물가 작가회 서동요 문학상
저서 : 동시집 『소풍 가는 날』



봄소식

보슬보슬 보드라운 느낌
내 마음 설레게 하네

살금살금 다가오는 소리
바깥세상 너무 궁금해

나지막한 봄노래에
쏘옥 고개 내미는
연듯빛 새싹

친구 소식

햇살이 찰랑찰랑
감잎에 앉으면
기름 바른 듯
윤기 반지르르

하얀 꿈 방글방글
피고 또 피어
가을은 아직도 먼데
하늘만 바라보네

잠 익으면 온다던
친구 떠올리며
해님이 바라보는
또 다른 노을빛 흥시

개나리

나직나직
소곤소곤
무슨 일들이야

코도 간질간질
입도 근질근질

못 참겠다 에이취!
산수유 재채기에
깜짝 놀란 개나리

노랑 꽃 터뜨리고 말았어요
봄이 더 환해졌어요

물웅덩이

물가에 살랑이는 강아지풀
사알짝 만져보니 보들보들
만지고 또 어루만지니
내 맘 아는 듯 꼬덕꼬덕

웅덩이엔 뭐가 있을까
고개 숙여 들여다보니
구름과 강아지풀과
엄마 닮은 순한 얼굴

봄 밭에서

엄마는 돌미나리
아빠는 물미나리
접시에 오른 반찬
모양과 향은 비슷한데
맛은 달라요

봄동 비빔밥
냉이된장국
두레상에 둘러앉아
봄을 나눠 먹는 가족 있어
행복해요



박미자

한국문인협회, 평택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경기지회장
시원문학회 동인, 한국동요음악협회 이사, 심리상담센터장
한국문인협회 경기문학상, 평택문학상, 한국아동문학작가상 수상
저서 : 시집 『모든 시간들에겐 향기가 있다』,
동시집 『여기 좀 봐』, 『바람 불어 좋은 날』
동요 : 엄마, 봄날, 손 망치, 척척척 등 다수



대박이야

“딱 맞네”

엄마가 옷을 사주시며 빙그레

‘아니야, 너무 커서 멋지지 않아’
아쉬움과 함께 장롱 속에 가둔다

일 년 만에 발견한 근사한 새 옷
“정말, 딱 맞네!”

대박!
거울 속 멋쟁이 휘파람 불며 외출한다
옛보던 엄마도 엄지척!

정직한 내 동생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으라 해서 숨었더니
동생 나타나 술래와 한편 되어주네

얼굴 가린 커튼 사르륵 걷어주고
등 콧코 손가락으로 알려주고
책장 뒤에 숨어도 말릴 수가 없네

동생아, 제발 모른 척 좀 해줘!
형아, 솔직한 사람 되라고 했잖아!

이상한 숨바꼭질 놀이에
숨길 수 없는 어색한 웃음

형광등

깜·빡·깜·빡
믿고 기다리면
환하게 밝혀주는 형광 불빛
더디지만 찬찬하게
구석구석 어루만져주네

어·찜
우리 할머니랑 닮았어
끔·빡 한 박자
포근하게 안아주고
끔·빡 두 박자
투명하게 읽어주네

조금 늦지만
진한 메시지를 전해 주네

백화점에 없는 것

없는 게 없네요
알록달록 여러 가지
신기한 구경거리 가득

인형 하나 고르고
보드게임 짬해서
다 갖고 싶은데

없는 게 있네요
셈을 할 수 없는
유일한 보물단지

엄마의 꽃 미소
아빠의 눈빛 응원
달달한 가족 사랑

눈꽃 이불

함박눈 내리는 눈밭에 벌러덩
눈꽃 세상의 잠옷 차림 주인공
꼬마 눈사람 되어 뚱뚱뚱
꿈길 보드랍게 녹여주는 함박웃음
매끌매끌 더 신나서 까르륵

송이송이 신세계 눈꽃 나라
이리 뚱굴 저리 뚱굴 폭신평신평
엄마 품 같은 따사로운 이부자리
돌돌돌 김밥놀이 눈만 빼꼼 내밀고
한 폭의 우주 한가운데서 야호!



박순희

평택아동문학회 회원
아동문학문예 동시 신인문학상
한국아동문학회 이사



바람 놀이

소낙비 오는 날
우산을 뒤집어 놓는
심술쟁이 바람

멋진 모자도 훑
내동댕이치는
짓궂은 바람

이마에 맺힌 땀방울
말끔히 닦아주는
시원한 바람

한여름 열기도
씩 식혀주는
참 고마운 바람

할머니네 굴뚝

기다란 목 주욱 빼고
항아리 모자 쓴 굴뚝
하얀 연기 모락모락
맛있는 냄새 풍긴다

고단했던 하루
할머니 머리 색깔처럼
하얗게 지우려고
하늘 높이높이 피워 올린다

내 그림자

동행해 주는
별님 덕분에
가벼워진 발걸음

등불 되어주는
달님 덕분에
밝아진 길목

길동무해 주는
그림자 덕분에
환해진 마음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가을날

잔잔한 호숫가에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 하늘
그 곁으로
단풍잎과 은행잎이
따라 앉는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물결이 사랑사랑 춤을 춘다

봄눈

하얗게 덮어버린 들판에
흰 털모자 뒤집어쓴
푸른 소나무
허허허
겨울인가 봄인가
구경거리 생겼네

참새 가족들
떼 지어 나와 수군수군
흰 눈 이불 속에선
철모르는 새싹들의
기지개 켜는 소리



방효필

현대수필 등단
아동문학세상 동시부분 신인상, 남강문학 아동문학부문 작가상
한국해양아동문학연구소 디카에세이상 금상
청암문학작가협회 이사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한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시 창작 지도교수, 한국 청암 문예대학 학장
저서 : 시집 『바다에 뜬 달을 만다』
동시집 『밥 먹고 꿈 먹고』



놀이터

조각구름 흘러가고
해님이 다가와
버들강아지
깔깔거리네!
이름 모를 꽃들도 덩달아
합창하는 오후

우정

사랑도 하나
미움도 하나

너와 나의 6년
등곶길과 하곶길

우연이 아니었어

냉이 (동민조시)

이파리
쌉싸름한
봄의 소식통
봄나물 최고야.

소나무 (동민조시)

몇 천 년
갸갸하게
푸른 마음을
전해주는 사랑.

벚꽃 (동민조시)

달과 별
기운 받아
어여쁜 색깔
저렇게 고울까.



안경옥

평택아동문학회 회원
아동문학문예 동시 신인문학상
한국아동문학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



봄비

창문에
또닥또닥

떨어지는 빗물따라
꽃나무 그려지면

담 넘어 산수유
톡톡톡 노란
등불을 켜요

내 마음에도
노란
꽃등 켜져요

머리띠

비온 뒤
얇은 햇살이

곱게 빛은
무지개 머리띠

구름머리 위에
사뿐 얹어
하늘을 예쁘게 꾸며주네

사물놀이

할머니 집
마당구석에 놓인
까망 가마솥 뚜껑

빗방울이
둥두둥 둥두둥
작은 북을 치고

빗줄기는
쿵딱다다 쿵다닥다다
장구 가락을 치고

천둥은
더르르갱 갱갱갱개갱
뽕과리치고

바람은 징~징~

솔뚜껑이
하늘을 초대하나 봐요

가게

외판집
산골짜기
트럭가게 오는 날

있을 것은 다 있고요
없을 것은 없습니다
확성기 소리 퍼지면

기다리던
반가운 얼굴들 뛰어나와
오순도순 하하호호

덤도 주고
외상도 주고
공짜도 주는
마음과 마음 이어지는
정다운 가게

가을 바람

차가운
바람 불면
나무들은
차곡차곡 옷을 벗어
뿌리를 덮는다

뿌리가
깊어지면
물이 위로 흘러

햇살 좋은 날
꽃마중
할 수 있으니까



이은혜

평택아동문학회 회원

저서 : 그림책 『느티나무는 보았다』



몽계구름

몽계구름 속에서
숨바꼭질하면
아무도 못 찾을 걸

나도 못 나올지 몰라
깊이 잠들어서

지휘자

햇빛이 찰랑찰랑
별들이 반짝반짝
바람에 새소리가 오르락내리락
별판에 곡식들이 쑥쑥
꿈을 향해 지휘봉이 춤춘다

신발장 수다

어딜 갔다 왔니?
소곤소곤
수다를 떠다

난, 푸른 산
돌과 나뭇가지 따라
멋진 경치를 보았지

난, 해수욕장
썰물과 밀물 따라
알록달록한 물고기랑 놀았어

난, 공원에서 산책하다
꽃잎을 데리고 왔지
내일은 또 어딜 갈까?

토닥토닥

따뜻한
엄마 손이
다~괜찮다고
아가 등에 토닥토닥!

귀여운
아가 얼굴
다~좋다면서
엄마 보고 방긋!

든든한
아빠 등에
짱~힘내세요
아가 손이 툭툭

쫄그만
아이 입술
짱~힘내세요
아빠 볼에 뽀뽀

자석 (동민조시)

끈끈한
우리 가족

보면 다투고
안 보면 궁금해
양극을 오간다



이태동

저서 : 동시집 『수다쟁이 보고서』
그림동화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동시집 『세상은 스케치북』
공직문학상(은상)



따라 해 보세요

눈
눈 눈 눈, 코

코
코 코 코, 귀

귀
귀 귀 귀, 입

따라 하기 힘든 때가 있었지
신통방통한 게임

지금 누구하고 뭘 할까

사과의 사과문

피부 곱지 않다고
짱그리지 마세요

입맛 시큼하다고
눈 감지 마세요

울퉁불퉁 못생겼다
흉보지 마세요

새로 태어났걸랑요
사과식초로!

생각의 정원사

“잘해 봐”
응원에 선을 넘는다

“조금 더 해 봐”
인상 쓴다

“매일 해 봐”
발에 줄이 칭칭 감긴다

떼굴떼굴

참나무가 도토리를 던집니다
한동안 몸을 흔들니다

도토리는 굴러가며
굴로 들어섭니다

청설모가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에
두리번거립니다
순간, 마주치자
청설모는
우왕좌왕합니다

할미꽃

난, 어릴 적
절대 꽃이 될 수 없었어요

다른 꽃들은 너무 예쁘고
우아했거든요
먼 곳까지 향기도 그윽했구요

난, 고개 숙여 살아왔어요



이해복

월간 『문예사조』 동시 당선 등단
계간 『자유문학』 민조 · 동민조시 등림
평택 문인협회 회장 역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 한국문인협회 ·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한국예총 예술문화 공로상 · 경기도 문학상(아동문학), 평택문학상
저서: 동시집 『장갑 한 짝』, 『아빠의 리모컨』
동민조 시집 『여름이 참 달다』
문해교육 교재 『삶과 언어의 악보』, 『나랏말씀 1, Ⅱ』
그림책 『낙촌, 그래 그랬어』



그늘

양지쪽 목련은
금세 웃다 졌는데

집 뒤 그늘의 목련은
웃을락 말락

여유를 가르쳐주는
그늘에 서서

벉그는 꽃망울을
올려다 본다

행동이 느린 동생
매일 채근하던 나

마음 느긋해질
참 공부를 한다

잠자는 농기구

허리 굽은 호미
이 다 빠진 낫

구멍 숭숭 삼태기
끈 떨어진 지게

할머니댁 광에서
먼지 쓴 채 꾸벅꾸벅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원 가신 뒤

그래도 다시 뵈까
집 지키며 즐고 있다

아빠의 밥상

엄마가 어딜 가서서
아빠가 차린

참 간단한
밥상

라면 냄비 하나에
김치와 밥 한 공기

- 어때? 훌륭하지?
- 예, 아빠!

마주 보고 웃지만
정말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아, 엄마는
언제나 오시려나!

청보리밭 (동민조시)

바람에
사락사락
물결 이루며
음표로 흔들려.

좋은 친구 (동민조시)

찾기는
어렵지만
가지면 좋은
네 잎 클로버야.



진귀녀

알뜰 수기 경기도지사상
전국주부 백일장 국무총리상
체신문예부 작품상(수기)
전국 어머니 동화구연대회 우수상
국제문학 동화로 등단



그네

맑은 하늘 나뭇가지에
매달린 그네
지나가던 구름과 바람도
한 번씩 앉아보곤
나에게 속삭인다

사랑대는 그네에
발을 올리고
힘껏 굴러 봐

날개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아 봐

장난감 인형

넌 항상
나를 끌어안고
잠들었지
꿈속 달나라에 가서
우리 둘은 밤새 꿈냥꿈냥

이젠 컸다고
서랍에서 꺼내지도 않네
즐거웠던 그때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

따스한 온기 품고
언제나 널 기다릴 거야

자전거

엄마는 두 발
나는 세 발
신나게 달린다
웃으며 달린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
따릉따릉

반짝거리는 눈빛 사이로
엄마랑 나랑
두 번 세 번
자꾸 타고 싶다

창문 (동민조시)

비 오면
방울방울
작은 창문은
나만의 도화지.

손가락
붓이 되어
빗물 수채화
그리운 네 얼굴.

덩굴손 (동민조시)

초록 잎
나무를
돌돌 감고
올라가요

떨어지지 마
걱정하지 마
손 꼭 붙잡으니
든든해서 좋아.



최경순

문학광장 등단, 경기 신인문학상
황금찬 문학상 대상, 문학광장 문학 대상
평택문학상, 경기문학 공로상
한국문인협회 회원, 평택문인협회 부지부장
시 낭송가, 시낭송 평가사, 수필 낭송가
시집 :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가곡 『평택강은 흐른다』 외 다수



너무해

언 땅 녹자
흙 위에 솟아오른 뿌리
-애들아, 여기 좀 봐, 양파 찾았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숨, 턱 막힌 고요

폭설도 비바람도 꼭 참아내고
이제는 꽃필 차례인데
우르르 몰려와 뿌리째 뽑아 들고
빙글빙글 도는 아이들 함성소리

양파 닮은 수선화 비명소리에
새들도 울어주는 따스한 봄날

첫눈 오는 날

펄펄 내리는 눈송이마다
좋은 생각 하나씩 엮어 놓으면
세상이 환해질까

펄펄 내리는 눈송이마다
보고 싶은 내마음 엮어 보내면
너에게 닿을 수 있을까

집집마다 문 열어 젖히고
단힌 마음에 창을 내는 힘이라면
뭘든지 할 수 있겠다

노란 수선화 (동민조시)

올해도
한송이 꽃
피었습니다

아! 그리움 한 컷.

번개 (동민조시)

뭐하니
보고 싶다
번개치는 날
땀 약속 잡지마.

봄 햇살 (동민조시)

조용히
내려앉은
따스한 온기
꽃송이 피우지.

까르르
동생 웃음
우리 가족들
웃음꽃 피우지.



최일숙

청암문학 시부문 등단
창원아동문학 회원, 동심 아동문학 회원
안국 문학 작가상
서석문학 시조 시인
한국 해양 아동문학 디카 에세이상 수상
경남아동문학 동카시상 수상

디카 시집 : 『겉고 보고 듣고 쉬며 삶의 향기 담다』

공저 민조 시집 : 『안성 장날』, 『고삼호수』, 『서운산』, 『고추잠자리』, 『가을 하늘』,
『해바라기』, 『안성 참 좋다』, 『안성 사람 이야기』 외 다수



아기 떡뽕

한입 베어 물면 고소한 냄새
바스락바스락 바사삭

길쭉한 간식 손에 꼭 쥐고
앞니 두 개로 오물오물

아기 입술은 삐죽삐죽
설 새 없이 바빠요

걸음마

아장아장 뒤통뒤통
첫발 내딛는 울 아가

엄마는 조마조마
아빠는 콩닥콩닥

비틀비틀 아기 걸음
귀여운 펭귄 같아요

소나기

먹구름이 숨바꼭질해요
해님이 고개 내밀면
구름이 얼른 숨어요

우르릉 쿵쿵
서로 술래 안 하겠다고 싸우나 봐요

하늘에서 빗줄기가 주룩주룩
소나기는 참 심술쟁이

해님이 다시 활짝 웃으니
일곱 색깔 무지개 다리가 생겼어요

변덕쟁이

하늘도 엄마한테 혼나나 봐
후두둑 후두둑 소나기 눈물 쏟아내잖아

눈물 다 쏟으니
속이 시원해졌나 봐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풀렸나 봐

먹구름 훌쩍 떠나고
무지개 쓱쓱 그리더니
해님이 다시 활짝!

아기 참새

폴짝폴짝
같이 놀자며
다가오더니

한 걸음 다가가면
포로로 포로로
멀리 달아나요

<http://cafe.daum.net/ptchildliterature>

평택아동문학회
회/원/작/품

동화

—
이경희



이경희

월간 <아동문학> 동화당선 등단
전국 편지글쓰기모임 <편지마을> 회원
색동어머니 동화구연가
제3회 박화목 문학상 수상
제4회 전국 행시백일장 최우수상 수상
청암문학 문학공로상 수상
저서 : 동화집 『밝혀야 할 비밀』
공저 : 『행시와 자유시와의 만남』



사도세자 영혼이 깃든 섬, 수도(水道)

오천 개가 넘는 섬을 갖고 있는 신안에는 작은 섬, 수도(水道)가 있어요. 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임자도에 속해 있어서 수도리라고 하지요. 섬 중앙에 있는 산의 중턱에 사도세자를 기리는 무산단(巫山壇)이 있어요.

임자도는 조선 초기에는 영광군에 편입되었다가 후기에는 나주목에 속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주로 쌀, 보리, 고구마를 경작하는 데 조선시대에는 말을 많이 길렀다고 해요. 숙종 때인 1711년 임자진의 설치와 함께 임자 목장이 개설되어 말 175마리를 길렀다고 전해지네요.

임자도 목장 폐쇄를 결정한 임금은 정조(1752~1800)인데 이곳에 사당이 있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요. 정조의 효성을 안 일부 신하들이 사도세자의 제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전해지는군요.

자!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설화로 들어가 볼까요?

그 시대는 수도에서는 집집마다 주로 말을 키웠는데 어느 날 새벽에 노인 이관중이 마굿간에 나와 말이 먹을 식량을 채우면서 고개를 가웃거리며 부지런히 말구유를 옮겨 다녔어요. 어젯밤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이웃에 사는 석정 노인에게 갈 생각이었어요.

그 때 마침 이웃에 사는 채후천 노인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급히 왔는지 숨을 몰아쉬며 하는 말이

“어이! 친구, 내 얘기 좀 들어 보게. 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네. 꿈에 마을 앞에 배 한 척이 나타나더니 한 귀공자가 내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여.”

“아, 그래? 나도 그런 꿈을 꿴다.”

관중 노인도 신기해서 맞장구를 치며 눈을 크게 떴어요.

그때 대문으로 김석정 노인이 쓰윽 들어서는데 아니겠어요.

“자네들 무슨 얘기를 그리 진지하게 한당가?”

“아 글씨, 나랑 후천이 친구가 똑같은 꿈을 꿴당께. 꿈에 나랏님 같이 생긴 양반이 나타났당께”

관중 노인과 후천 노인이 서로 마주 보며 신기하다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러가? 나도 어떤 곱게 생긴 처사가 우리 마을 앞에 배를 타고 와서 내리더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러더만. -나는 사도세자인데 원한이 사무쳐서 나라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이곳에 이르렀노라. 이곳 풍경이 하도 좋아 내 영혼이 이곳에 머물렀으니 그리 알라.- 하며 뒷산으로 올라가더만.”

“아하! 글시말시, 그럼 우리 셋이 꼭 같은 꿈을 꿴구만.”

“참말로 이상하네.”

세 노인은 서로 고개를 이리 저리 가웃거리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다음날 ‘바다에 뭐가 떠내려 온다!’ 는 마을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에 세 노인은 일하다 말고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살펴보니 글썽까만 귀작 하나가 바다에 둥둥 떠서 파도와 함께 밀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얼른 물으로 건져 올렸지요. 그제야 이틀간의 현몽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 날밤 관중 노인의 꿈에 사도세자가 비치더니

‘어서 단을 만들어 술을 올려라. 정성을 다해 청결히 하되 민폐를 끼칠까 두려우니 풍요롭게 하지는 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의논을 했어요.

사람들은 사도세자의 영혼이 진짜로 왔음을 알고 서둘러 산 중턱에 석단을 설치했어요. 모두들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니 며칠 안에 반듯한 석단이 만들어졌지요. 이름을 무산단(巫山壇)이라 하고 제를 정성껏 올렸어요.

그 후 세 집안의 후손들은 매년 좋은 날을 잡아 제를 올렸는데 그런 날은 바다가 울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도세자의 제사를 지내는 일에 소홀하여 지내지 않자, 마을에 가뭄이 들고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때 마을 사람들 꿈에 사도세자가 다시 나타나 혼백을 소홀히 한 때문이라고 호통을 쳤다고 해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고종 11년 1874년 제단을 다시 새롭게 단장하고 농사일이 한 가한 한식일을 택해 다시 제사를 이어갔어요.

이후 폐서인¹⁾이 되었던 세자가 그의 아들 정조에 의해 복위되고 고종대에 장조(莊祖)²⁾로 추론되면서 일시 제단을 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또 사도세자가 다시 촌로들의 꿈속에 나타나고 마을에 나쁜 일이 자꾸 생기자 세 번째로 1918년 사당을 세워 면민들이 제사를 모시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가끔 외지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화는 마을 뒷산을 ‘무산(巫山)’ 또는 ‘당산’이라고 하는데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못가고 있던 봉씨가 하늘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섬으로 건너와 기다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산 이름이 한자 풀이를 하면 ‘춤추는 산’이라 특이하지요?

1908년에 작성된 지도군지에 장조단(莊祖壇)에 대한 설화가 상세하게 남아있어요.

1) 폐서인(廢庶人) : 왕비, 세자, 대군등 왕족이나 양반이 죄를 지어 신분과 지위를 잃고 일반 서민이 되는 것을 일컫는 말.

2) 장조(莊祖) : 사도세자는 생전에는 왕이 아니었고 왕세자였다가 비극적으로 사망했지만 후대에 와서 고종때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론하면서 장조로 올렸다는 뜻

-지도에서 서쪽으로 10리를 가면 수도가 있다. 이 수도에는 무산(巫山)이 있으며, 형세가 거인(巨人)의 큰 덕과 같이 근엄한 모습으로 아래를 굽어보는 모습이다. 무산의 선정에 장조황제(莊祖皇帝, 사도세자)를 모시는 단이 있다

무산단을 ‘장조단(莊祖壇)’이라고도 했어요.

수도리 큰봉산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당집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담장을 두르고 그 가운데 돌로 된 단이 있어요. 마을 주민 김윤복씨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녹슨 철마(靑鐵)를 본 기억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에도 이와 똑같은 설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동암묘에는 사도세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제사 때 사용하는 축문과 제물 목록이 적혀있어요. 또 1971년에 사당 증건 당시 참석자들의 명단도 적혀있어요. 묘정비를 지나 내삼문을 들어서면 전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묘당이 있어요. 이 묘당이 사도세자 신위와 세 개의 현판이 걸려있답니다.

한 번 찾아가 볼만하지요?

조선시대 한양에서 떠나려온 철마가 외딴 작은 섬마을, 수도까지 내려오고 사도세자의 제단이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마을에 전해지는 전설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고 아마도 사도세자와 관련되어 유배되었거나 그 계통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이 인근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런 풍습이 만들어졌으리라고 추정하지요.

아무튼 신안의 작은 섬마을에 사도세자의 영혼이 깃들어 전설로 내려온다는 게 참으로 의미있는 일입니다. (**)

<http://cafe.daum.net/ptchildliterature>

좌울어린이 문학상 수상작

동시

-
- 자란초 3 박유담
 - 대동초 5 조주안
 - 새빛초 2 김지우
 - 현덕초 6 조서연
 - 새빛초 2 이세미
 - 지산초 4 이가연
 - 이화초 6 신하윤
 - 새빛초 2 김윤아
 - 이화초 3 최서진
 - 덕동초 4 정동욱

내 동생 (평택시장상)

자란초 3학년 박유담

내 말은 잘 안 듣지만
날 좋아해 주는 내 동생

맨날 티격태격하지만
날 좋아해 주는 내 동생

장난꾸러기고
말썽쟁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내 동생

피곤함 군대 (평택시장상)

대동초 5학년 조주안

아침에 일어났다.
피곤함 군대가 출동했다.
피곤함 군대가 소리를 지르니
정신이 몽롱하다.

학교를 끝내고 학원으로 달려간다.
피곤함 군대가 머리에서 뛰어다니니
머리가 아프다.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
피곤함 군대가 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눈꺼풀이 닫힌다.

침대에 누웠다.
피곤함 군대가 철수했다.

내일은 피곤함 군대를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주말 지원군이 오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장점 (국회의원상)

새빛초 2학년 김지우

선생님은 잘 웃는다
하하 호호
선생님은 착하다
배려도 잘 해주신다
물어보는 것도 거의 다 대답해 주신다

1분 1초도 선생님과 떨어지기 싫어!
선생님과 같이 여행도 가고 싶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빔밥 (국회의원상)

현덕초 6학년 조서연

처음엔 그저 새하얀 밥이었는데
기쁜 마음이 담긴 당근 반개

슬픈 마음이 담긴 콩나물과
설렘이 들어간 버섯 한 줌

잘게 다진 분노가 들어간 고기 조금에
마지막으로 행복이 담긴 고추장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감정 비빔밥이 완성된다.

맛있는 급식 (평택교육장상)

새빛초 2학년 이세미

우리 학교는 급식 맛이 짱이다
그중에 최고는 마라탕

쫄깃하고 말랑한 뉴진면
엄청나게 매운 마라탕

그다음 최고는
1년마다 나온 구슬 아이스크림

한입 남남 먹으면
작은 동그란 얼음이

입에 들어온 것 같다
우리 학교는 급식 맛이 짱이다

별에게 묻다 (평택교육장상)

지산초 4학년 이가연

깜깜한 밤하늘 아래,
수많은 별들에게 속삭인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답 없는 질문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나를 찾아간다

햇살 (평택시의회 의장상)

이화초 6학년 신하윤

햇살 같은
우리 엄마 아빠

내 어린 마음의 새싹을
단단한 나무로 키워주는
햇살

내 마음에 비가 내린 날
무지개를 만들어주는
햇살

내 마음이 언 날
괜찮아 괜찮이라며
조금씩 녹여주는
햇살

재밋고 힘든 물놀이 (평택시의회 의장상)

새빛초 2학년 김윤아

나도 뭘갈 해주고 싶은데
어떤 무엇이 해보다 더하리

괜히 엄마 아빠 마음에
바람이 불게 할까 봐
걱정되네.

더운 여름엔 물놀이가
짱이야!
시원하고 신나고 너무 행복해

하지만 집에 와서 씻을 때는
귀찮고 찝찝하고 너무 힘들어

다음에는 안 갈래 생각해도
결국 또 가고 싶은
재밋고 힘든 물놀이의 매력

내 이빨 (주민자치회장상)

이화초 3학년 최서진

흔들흔들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내 이빨
치과 가자고 계속 흔들흔들

치과에서 이빨을 뽑았다
야호! 이빨이 좋아한다

그렇지만 이빨은 또 갇힌다
이빨 주머니 통에

네모 세상 (주민자치회장상)

덕동초 4학년 정동욱

어느 날 눈을 뜨니
세상이 네모

내 손도 네모
고양이 얼굴도 네모
나뭇잎도 네모

굴러가지 않는 네모난 자동차 바퀴
돌리기 힘든 네모난 홀라후프

다시 눈을 뜨니 끝나가는 점심시간
“잠깐 졸았구나!”

반가운 동그란 축구공
반가운 동그란 태양

제4회 좌울 어린이 문학상 심사평

심사위원장 : 이태동

심사위원 : 김순희 손창완 이해복

2025. 평택시 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좌울 어린이 문학상”이 올해로 벌써 4회를 맞이하게 되었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많아 심사하는 동안 든든하고 즐거웠어요.

심사는 저학년, 고학년 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저학년 작품 중 평택시장상에는 자란초 3학년 박유담 “내 동생”을 기쁜 마음으로 뽑았어요. 동생과 자주 티격태격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고” 표현은 속 깊은 형의 따스한 마음이 전해져 뜨거운 감동을 주었어요.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시의회 의장상에는 새빛초 2학년 김윤아의 “재밋고 힘든 물놀이”에 심사 위원들 의견이 집중되었어요. 여름철 신나는 물놀이 할 때 느끼는 기분과 집으로 돌아와 부담해야 할 일에 대해 충돌하면서 “다음에는 안 갈래 생각해도 결국 또 가고 싶은” 명쾌한 결론에 이르는 반전을 보여주었어요.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국회의원상에는 “선생님의 장점”을 쓴 새빛초 2학년 김지우에게 돌아갔어요. 선생님 밝은 표정과 배려에 “떨어지기 싫어 선생님과 여행도” 감히 꿈꾸는 소녀의 열정과 진심이 다가왔어요. 맑

고 고운 선생님과 제자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연상되었어요.

교육장상에는 새빛초 2학년 이세이의 “맛있는 급식”이 깊은 공감대를 이끌기에 충분했어요. 급식 시간 마라탕 뉴진면 맛의 기억을 떠올리며 1년마다 나온 구슬 아이스크림 한입 남남 먹으면 을 통해 더욱 맛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과정이 실감 났어요.

학교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다른 측면을 붙들어 내는 데에 성공했어요.

주민자치회장상에는 이화초 3학년 최서진 “내 이빨(치아)”이 선정되었어요.

“흔들흔들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내 이빨” 최후에는 이가 어두컴컴한 주머니에 던져진다는 안타까운 심정까지 노래하고 있어요. 발상이 너무 좋았고 사소한 일도 일관되게 관찰하는 습관과 다른 사물의 입장에서도 느껴보는 능력을 높이 사고 싶었어요.

고학년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볼까요?

평택시장상에는 대동초 5학년 조주안의 “피곤함 군대”가 눈에 확연히 띄었어요. 이 작품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와 학원 거리를 오가는 상황, 일상이 마치 군대와 비슷하여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거나 어렵다는 분위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주말에는 지원군이 등장한다는 비유 또한 깔끔해 시를 끌고 가는 능력이 탄탄해 보였어요. 훌륭했어요.

시의회 의장상에는 이화초 6학년 신하윤의 “햇살”을 선정했어요.

연혁 및 활동사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물씬 풍기는 시로 “내 마음에 비가 내린 날 무지개를 만들어 주는 햇살”, “어떤 무엇이 해보다 더하리”라는 표 현은 자신이 받는 혜택과 사랑이 너무 깊어 “햇살 같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논리와 연결되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새싹과 마음을 부모(햇살)에 비유한 점이 우수했어요.

국회의원상에는 “감정 비빔밥”을 쓴 현덕초 6학년 조서연에게 돌아갔어요. 감정에는 다양한 빛깔이 있지요? 기쁨 슬픔 설렘 분노 그 밖에 행복감 등. 단순히 비빔밥에서 출발한 생각이 매우 새롭고 절묘했어요. “처음엔 그저 새하얀 밥이었는데” 마지막엔 행복 고추장을 섞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 탁월해 보였어요. 참신했어요.

교육장상에는 지산초 4학년 이가연의 “별에게 묻다”로 결정되었어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우리는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밤하늘 별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 있나요? 사색에 잠긴 모습이 떠올랐어요. “답없는 질문 속에서도 찾아간다”는 시도는 매우 낭만적이면서도 성숙해 가는 한 단면을 읽기에 충분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장상에는 덕동초 4학년 정동욱의 “네모 세상”을 뽑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네모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 교실 책상 식탁 스마트폰 등등. 늘 익숙한 대상만 보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어요. 자신이 문득 잠에서 깨어난 후 눈앞에 둥근 공이 있음을 알아차려 날아갈 듯 좋아하는 반전이 보여요. 기발한 생각이었어요. 독자를 놀라게 하는 재주가 보였어요.

| 평택아동문학회 연혁 |

2003. 12. 4. 권희로, 이경희, 이해복 3인 문학회 결성
 2003. 12. 6. 이해복 경기도 문학상(아동문학)
 2003. 12. 15. 단체 인준 : 한국아동문학회 평택지부 평택아동문학회 창립
 2003. 12. 28. 창립총회, 권희로 초대회장 선임
2004. 2. 권희로 첫 동시집 『아이야, 꿈나무로 자라아지』 출간
2005. 5. 7. 문학기행 (함평나비축제)
2006. 1. 10. 제2대 이경희 회장 취임
 2006. 4. 19. 제1집 『꿈꾸는 바람개비』 출간
 2006. 6. 6. 문학기행 (마곡사)
 2006. 7. 18. 김청운 동시집 『전원에 피는 꽃』 출간
2007. 6. 12. 색동극단 뮤지컬 공연(굴러가는 빵)
 보육시설연합회 아동관람(북부문예회관)
 2007. 9. 15. 제2집 『도란도란 풀꽃향기』 출간
2008. 5. 5. 현수막시화전 (시청앞) : 회원 일동 작품
 2008. 8. 15. 문학기행 (일죽 허브랜드)
2009. 1. 22. 제3집 『눈부신 선물』 출간
 2009. 10. 사회단체보조금 받음(출판비 보조)
 2009. 11. 1. 문학기행(안성 마노 민속체험장)
 2009. 12. 31. 제4집 『꽃그늘 아래』 출간
2010. 1. 제3대 이해복 회장 취임
 2010. 5. 8. 문학기행(군산 선유도)
 2010. 10. 사회단체보조금 받음(출판비 보조)
 2010. 10. 18. 제5집 『달콤한 놀이터』 출간

2011. 10. 21. 제6집 『기지개 켜는 해님』 출간
 2011. 12. 24. 박미자 시집 『모든 시간들에겐 향기가 있다』 출간
 2012. 1. 제4대 박미자 회장 취임
 2012. 8. 한국아동문학회 정기총회 및 여름세미나 참석(서울)
 2012. 10. 26. 제7집 『웃음꽃 피는 뜨락』 출간
 2012. 12. 5. 박미자 경기도문학상(시부문)

 2013. 3. 25. 이해복 동시집 『아빠의 리모컨』 출간
 2013. 4. 문학기행(천리포)
 2013. 9. 이경희 동화집 『밝혀야 할 비밀』 출간
 2013. 10. 31. 제8집 『시소 타는 물방울』 출간

 2014.1 제5대 김복남 회장 취임
 2014. 6. 6. 문학기행(서울 시티투어)
 2014. 8. 찾아가는 동시교실 및 인형극 공연
 2014. 8. 이태동 시집 『간판을 읽어 봐』 출간
 2014. 9. 무봉산 축제 시낭송 발표
 2014. 10. 24. 제9집 『붕어빵 한 봉지』 출간

 2015. 2. 시문학 아카데미 개최(강사 김미희 작가)
 2015. 4. 문학기행(용주사와 물향기 수목원)
 2015. 7. 이경희 박화목 문학상 수상
 2015. 9. 평생교육학습지원 배달강좌제 동시 아카데미 수업
 2015. 9. 제10집 『하늘을 담은 연못』 출간

 2016. 1. 제6대 김순희 회장 취임
 2016. 1. 박미자 동시집 『여기 좀 봐』 출간
 2016. 5. 문학기행(진천 농다리, 보탑사, 세종시 뒤웅박 고을)
 2016. 9. 제11집 『날개 달린 운동화』 출간
 2016.11.16. 문학기행(정지용문학관)
 2016.11. 이태동 동시집 『수다쟁이 보고서』 출간

 2017. 2. 최경순 시집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을때』 출간
 2017. 5. 시화전(어린이날)

2017. 5. 문학기행(심훈문학관)
 2017. 8. 18. 한국아동문학회 세미나(대전)
 2017. 11. 21. 제12집 『해님이 살금살금』 출간

 2018. 1. 제7대 김화창 회장 취임
 2018. 1. 박미자 한국아동문학회 동시부문 '오늘의 작가상' 수상
 2018. 4. 문학기행(충남 아산 신정호수)
 2018. 6. 이태동 공무원 문예대전 동시부문 은상 수상
 2018. 6. 손창완 공무원 문예대전 시조부문 입선
 2018. 9. 13. 제13집 『구름 목도리』 출간
 2018. 11. 20. 김정자 지필문학 신인문학상

 2019. 5. 시화전(진위천)
 2019. 5. 6. 문학기행(군포 수리산)
 2019. 7. 김경자 동시집 『은빛 물비늘』 출간
 2019. 10. 제14집 『소풍 가는 꼬끼리』 출간
 2019. 10. 17. 이해복 한국예총 예술문화 공로상
 2019. 11. 김경자 강건문학 신춘문에 작가상 수상
 2019. 12. 이경희 대한민국 주먹행시전 최우수작품상 수상

 2020. 1. 제8대 이태동 회장 취임
 2020. 8. 손창완 공직문학상 수상
 2020. 8. 방효필 동시집 『밥 먹고 꿈 먹고』 출간
 2020. 8. 김화창 동시집 『소풍 가는 날』 출간
 2020. 9. 방효필 현대계간문학 평론부문 수상
 2020. 9. 제15집 『평택아동문학』 출간
 2020. 10. 20. 박미자 한국아동문학회 경기 총지회장 취임
 2020. 11. 14. 방효필 현대문학신문 경기본부장 취임
 2020. 11. 25. 정인주 동서문학상 동시 은상
 2020. 11. 30. 손창완 중앙시조백일장 월간 장원
 2020. 12. 25. 방효필 올해의 동심문학가 수상

 2021. 4. 10. 김화창 한국아동문학 오늘의 작가상 수상
 2021. 4. 10. 김정자 한국아동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2021. 6. 3. 김경자 문학과 어린이 고운글 문학상 수상
 2021. 7. 19. 최경순 황금찬 문학상 수상
 2021. 7. 30. 손창완 중앙시조 백일장 월간 장원
 2021. 8. 5. 경봉현 동시집 『청개구리의 노래』 출간
 2021. 8. 쟁반 도자기 시화전
 2021. 9. 24. 제16호 평택아동문학 출간
 2021. 11. 5. 최경순 경기문학 문학공로상
 2021. 11. 13. 부락산 진위천 문학기행
 2021. 11. 19. 김화창 천등문학상 수상
 2021. 11. 27. 김경자 제2회 청암문학상 본상

2022. 1. 제9대 강영희 회장 취임
 2022. 4. 24. 경봉현 한국아동문학 오늘의 작가상 수상
 2022. 5. 12. 제17호 평택아동문학 출간
 2022. 6. 30.~7.1. 도자기 컵 시화전 (문화공간 숲)
 2022. 9. 17. 박순희 한국아동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2022. 10. 3. 문학기행 (김삿갓 문학관)
 2022. 11. 12. 손창완 경기문학 문학공로상
 2022. 12. 7. 방효필 남강문학 아동문학부문 작가상

2023. 2. 3. 방효필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 '문화인' 대상 수상(시사투데이)
 2023. 2. 11. 안경옥 제 23회 아동문학예술 신인문학상 수상
 2023. 2. 28. 김경자 『아기 꽃망울의 꿈』 동시집 발간
 2023. 5. 5. 김화창 문학과 어린이 고운글 문학상
 2023. 5. 25. 제18호 평택아동문학 출간
 2023. 10. 11. 장항송림육장 문학기행
 2023. 10. 17. 김경자 한국문인협회 전영택 문학상 수상
 2023. 11. 박미자 동시집 『바람 불어 좋은 날』 출간
 2023. 11. 30. 이태동 청암문학 작가협회 특별공로상 수상

2024. 1. 제10대 김정자 회장 취임
 2024. 1. 27. 김경자 한국 동요음악 작사 대상 수상
 2024. 2. 17. 이태동 아동문학예술 신인문학상 수상
 2024. 2. 17. 박미자 한국아동문학 작가상 수상

2024. 3. 1. 방효필 한국해양아동문화연구소 디카에세이 작가 등단
 2024. 4. 김순희 자유문학 동민조시 등림
 2024. 4. 강영희 자유문학 동민조시 등림
 2024. 4. 경봉현 동시집 『아팝나무꽃』 출간
 2024. 5. 1. 이태동 그림동화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출간
 2024. 5. 23. 평택아동문학 제19호 『햇살이 찰랑찰랑』 출간
 시화 전시회
 2024. 6. 9. 김화창 설만한물가작가회 서동요 문학상 수상
 2024. 8. 강영희 밀크티 창작 과학동화 은상 수상
 2024. 9. 28. 좌을 어린이문학상 MOU 체결
 2024. 11. 2.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 붕어섬, 김용택문학관 문학기행
 2024. 11. 21. 김정자 설화그림책 『두사람 이야기』 출간
 고인정 설화그림책 『한온장군과 북바위』 출간
 이경희 청암문학 공로상수상
 박미자 청암문학상 본상 수상
 이태동 청암문학상 본상 수상
 최일숙 청암문학 신인상 수상
 2024. 12. 2. 손창완 시집 『월급봉투』 출간
 2024. 12. 17. 김경자 오산문학 공로상수상
 2024. 12. 28. 이경희 국립한경대학교 문예창작 특별공로상 수상

2025. 4. 9. 이해복 동민조시집 『여름이 참 달다』 출간
 2025. 5. 22. 평택아동문학 제20호 『정다운 바람길』 출간
 예코백 동민조시 전시회
 2025. 7. 강영희 동시집 『편의점 속 별사탕』 출간
 2025. 8. 강영희 동화집(공저) 『버드스파이크』 출간
 2025. 8. 최경순 시집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 출간
 2025. 11. 1. 문학기행(괴산 운보의 집, 문광저수지길)
 2025. 12. 김정자 그림책 『나의 소풍정원에서』
 이해복 그림책 『낙촌, 그래 그랬어』
 이은혜 그림책 『느티나무는 보았다』

2026. 1. 제11대 박미자 회장 취임
 2026. 1. 이태동 동시집 『세상은 스케치북』
 2026. 2. 9. 평택아동문학상 제정
 2026. 6. 17. 평택아동문학 제21호 『몽글몽글 동심꽃』 출간 및 액자 시회전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평택아동문학 제20호 출간기념회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평택아동문학 제20호 출간기념회 (동화구연)



평택아동문학 제20호 출간기념회



출간기념 및 에코백 동민조시 전시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평택아동문학 제20호 출간기념회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정기 모임 월례회의 (합평)



평택아동문학 제20호 출간기념회



월례회의 (이경희 선생님 교육 준비)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월례회의(이태동 선생님 교육준비)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평택아동문학 제21호 편집회의 1차



월례회의(사업계획 및 안건 심의)



평택아동문학 제21호 편집회의 2차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한국아동문학회 신년인사회 참석 공연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송년회 만찬 후 답소



안경옥 선생님 오늘의 작가상 수상 축하



동방학교 졸업식 평아문 상장 수여와 부상 전달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문학기행, 운보의 집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즐거움 문학기행



문학기행, 괴산 문광저수지



카페에서 문학 토론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이해복 선생님 동시집 출간 축하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회장 이취임 꽃다발 전달(이임 김정자 / 취임 박미자)



최일숙 선생님 동카시 수상 축하



이태동 선생님 동시집 출간 축하

사진으로 보는 평택아동문학회



강영희 선생님 동시집 출간 축하



월례회의(출간 사업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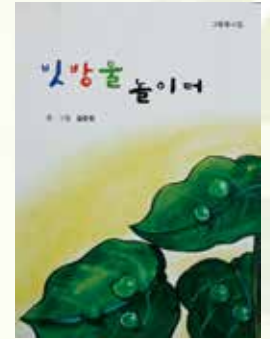
평택아동문학회 회원들 저서 소개



김경자 동시집
『은빛 물비늘』



김경자 동시집
『아기꽃망울의 꿈』



김순희 동시집
『빗방울 놀이터』



김화창 동시집
『소풍 가는 날』



이태동 동시집
『수다쟁이 보고서』



박미자 동시집
『여기 좀 봐』



박미자 시집
『모든 시간들에겐 향기가 있다』



방효필 시집
『바다에 뜬 달을 따다』



방효필 동시집
『밥 먹고 꿈 먹고』



이경희 동화집
『밝혀야 할 비밀』



이경희 행시집
『행시와 자유시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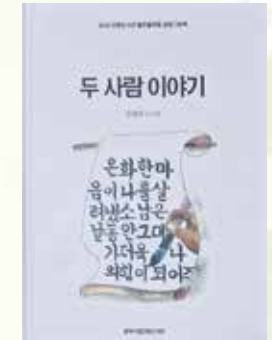
이해복 동시집
『장갑 한짝』



고인정 설화그림책
『조선달네 주막과 달이』



고인정 설화그림책
『한온장군과 북바위』



김정자 설화그림책
『두사람 이야기』



이해복 동시집
『아빠의 리모컨』



이해복 문해교육교재
『삶과 언어의 악보』



이해복 문해교육교재
『나랏말씀 1, II』



경봉현 동시집
『이팝나무꽃』



이태동 그림동화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최경순 시집
『너의 목소리를 듣는다.』



최경순 시집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경봉현 시집
『청개구리의 노래』



박미자 동시집
『바람 불어 좋은 날』



손창완 시집
『월급봉투』



이해복 동민조시집
『여름이 참 달다』



강영희 동시집
『편의점 속 별사탕』

평택아동문학회 회원 가입 안내

동심(童心)을 가꾸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은
우리 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영희 동화집(공저)
『버드 스파이크』



김정자 그림책
『나의 소풍정원에서』



이해복 그림책
『낙촌, 그래 그랬어』



이은혜 그림책
『느티나무는 보았다』



이태동 동시집
『세상은 스케치북』

가입 안내

자격 : 평택에 거주하고 아동문학을 가까이 하는 분

과정 : 우리 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작품 심사 후 추후 통보함

회원이 되면

연간 평택아동문학 회지에 작품을 수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문학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아동문학 활동과 모든 행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연락처

회 장 박미자 010-6345-4884

사무국장 이은혜 010-5841-7741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tchildliterature>

평가문

평택아동문학 제21호

| 발 행 일 | 2026년 6월 17일

| 발 행 처 | 평택아동문학회

| 발 행 인 | 박미자

| 디자인/제작 |  woori1577

| 전 화 | 1577-5433

| 홈페이지 | www.woori1577.com

ISBN 979-11-963319-3-1 73800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저자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는 생략합니다.

※ 이 책자는 평택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